

# 한전·가스, 내주 3분기 실적 발표...요금 인상할까

## 3분기 실적 발표...한전 10일·가스공사 9일 예정 “한전 단발성 흑전...가스, 미수금 추가↑” 전망 전기료는 자구책 발표 후...가스는 총선 후 전망

역대급 적자에 허덕이는 에너지공기업 한전과 가스공사가 다음주 중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한전은 흑자전환에 성공하겠지만 단발성에 그칠 것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4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주목된다. 1일 에너지공기업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10일, 가스공사는 9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2분기 2조272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총 누적 46조9516억원 적자를 냈다. 9분기 연속 적자다. 하지만 투자업계에서는 3분기에는 흑자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 에너지 가격이 한때 하락한

영향으로 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된다. 매출액은 그동안 전기료 인상 효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그럼에도 우려가 계속된다. 흑자전환이 3분기 단발성에 그칠 확률이 높은 데다, 연말께 사재발행 한도 문제에 다시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송유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다시)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분기 70달러 대에 머물던 유가가 90달러를 육박하고 지난 6월 9달러 대에 진입했던 액화천연가스(LNG)는 14달러 대에 환율·금리도 우호적이지 않다”며 “당장 연말께 사재발행 한도를 조정하지 않아도 내년 추가 자금 조달은 제한적”이라

고 진단했다. 권덕민 신영증권 연구원은 “3분기 흑전으로 영업손실 폭을 축소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한 상태”라며 사재발행 한도와 고금리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하면 낙관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3분기에 흑전을 기록해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에너지·물가 당국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을 두고 조율 중이다. 앞서 정부는 한전의 자구책 마련을 우선한 뒤 요금 인상안을 발표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주 내 자구책이 확정·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희망퇴직과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자구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지난주 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부에서 이를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사이 조율 중인 전기요금 인상안이 확정되면, 당장 협의에서 요금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가스공사의 3분기 실적도 주목된다. 가스공사의 2분기 영업이익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2050억31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9.1% 감소했지만 상반기 기준 7934억1000만원이다. 가스공사는 한전과 달리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손실이 아니지만, 문제는 미수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올해 상반기 미수용 미수금이 전년 말 대비 3조6579억원 늘어나 12조2435억원이 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민수용 LNG요금은 지난 5월 이후 소폭 인상됐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반등하는 점을 고려하면 미수금은 내년 초 16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에너지 당국 및 업계에서는 가스요금 인상 여부도 현재 논의 중이지만, 연내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겨울철을 앞둔 만큼 올초 난방비 대란이 재현될 수 있는 데다, 전기요금 인상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4·5·7·10월 4차례에 걸쳐 도

시가스 요금을 MJ(메가줄)당 5.5원, 약 38.7%의 가스요금이 인상됐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지금 원가 보상이 78% 수준이다. (가스요금 인상 관련)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겨울은 가장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계절”이라며 가스요금 인상은 해야 하지만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달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논의됐지만 가스요금 인상은 결정되지 않을 것 같다”며 “겨울 난방 성수기 직전 인상하기 부담스러운 데다, 한전과 달리 가스공사는 손익계산서 상에서 흑자를 유지하는 데다 상대적으로 사재 발행 한도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스요금 인상은 내년 총선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요금이 동결된다면 최근 유가와 가스 가격 인상이 맞물리면서 미수금 규모 역시 지속 상승하면서 14조~15조원까지 불어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변용일기자

## 롯데 ‘처음처럼·새로’ 소주, ‘클라우드’ 맥주도 인상 초읽기



맥주와 소주 1위 업체인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잇따라 가격을 올린 가운데, 이들과 함께 주류업계 ‘빅3’로 꼽히는 롯데칠성음료(롯데주류)가 조만간 술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원자재 가격 부담을 특정 기업이 아닌 업계 전체가 받고 있어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1일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롯데칠성음료 “계속되는 인상 요인으로 검토 중...정해진 바 없어”  
로 가격 인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어 주류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소주 ‘처음처럼’과 ‘새로’, 맥주 ‘클라우드’ 등을 생산·유통 중이다. 특히 지난해 출시한 무가당(제로 슈거) 소주 새로와 신제품 출시를 앞둔 클라우드 등으로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롯데칠성음료가 주류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최근 연이은 주류 기업들의 가격 인상 때문이다. 실제 오비맥주는 지난 달 카스·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 공장 출고가 가격을 평균 6.9% 인상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이달 9일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오리지널의 출고가를 6.95%(80원) 인상하기로 했다. 같은 날 켈리와 테라 출고기도 평균 6.8% 인상할 계획이다. 주류 업계에선 주정 등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공병 취급수수료, 제조경비 등 전반위적인 원가 상승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 가격은 매년 오르고 있다. 국내 10개 주정 제조사에 주정을 판매하는 대한주정판매는 올 4월 주정 가격을 평균 9.8% 인상했다. 당시 업계는 주정값 인상에 출고가 인상을 검토했으나 정부의 인상 자제 요청에 가격 인상을 보류했다. 서선욱기자



## 데스커, 멀티책상세트 출시...최대 46% 할인

CJ온스타일에서 단독 선런칭...프로모션 진행

데스커가 ‘멀티책상세트’를 출시하고 CJ온스타일에서 단독 선런칭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멀티책상세트는 넓은 책상 공간과 편리한 수납으로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품이다. 최대 1600mm 폭의 책상은 모니터나 책을 수납할 수 있는 멀티 선반과 필기류도 간편하게 수납 가능한 펜 트레이가 있어 깔끔하고 몰입된 환경을 제공한다. 선반 뒤쪽·하부 수납 공간에 배선홀과 빌트인 멀티탭, 배선 트레이를 제공해 IT 기기를 손쉽게 정리하고, 멀티미디어 학습에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상부 수납장에는 교재와 장난감을 눈에 보이지 않게 정리할 수 있고, 하부 수납 공간에는 책이나 PC 본체를 거저할 수 있다. 뉴시스

날에는 계획표, 메모지, 캘린더 등을 부착할 수 있고, 자석패널에 부착 가능한 멀티북엔드는 책 정리 외에도 작은 물품을 올려두는 트레이로 사용 가능하다. 어린이제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 테스트도 통과했다. 데스커는 멀티책상세트를 CJ온스타일 단독 선런칭하고 오는 5일까지 최대 46% 할인가에 판매한다. 기획전 기간 동안 제품 구매 시 비밀쿠폰 3만원권을 증정한다. 이날 오후 8시와 2일 오후 9시에 각각 CJ온스타일 앱과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라이브 방송 중 제품 구매 시 비밀쿠폰 5만원권과 CJ 적립금 5만원에 부착형 펠트 수납함, 멀티오거나이저 등의 사은품도 증정한다. 선런칭 프로모션 관련 자세한 사항은 CJ온스타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쉬었음’ 30대 3.8만명 늘었다...30%는 “몸 안 좋아서 쉬어요”

‘8월 비임금근로 및 비경인구 부가조사 결과’

올해 일할 능력이 있는데 구직활동 없이 쉬는 30대가 1년 전보다 3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이유는 ‘몸이 좋지 않아서’였다. 20대 이하의 ‘쉬었음’ 인구는 2만8000명 늘었는데, 32.5%가 ‘일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답했다. ◆비경인구 8.3만명 ↑...5명 중 1명은 “1년 내 취업·창업할 것” 1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8월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보다 8만3000명 감소한 1616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비경인구의 비중은 35.6%로 0.3%포인트(p) 감소했다. 비경인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최대치를 기록 후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자 올해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가 63.1%로 남자(36.9%)보다 높았고, 연령계층별로는 70세 이상(26.1%), 60대(18.6%), 20대(13.4%) 순으로 높았다. 특히 비경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보다 8만3000명 늘었다. 60대(5만2000명)를 제외하고 20대가 2만8000명(0.6%), 30대가 3만8000명(1.3%) 늘면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20대 이하가 쉬는 이유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건 ‘일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으로 32.5%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4.7%p 증가했다. 그 외 30대(30.0%), 40대(45.7%), 50대

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이후 11년간 내림세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비임금근로자의 65%로, 전년보다 3만4000명 늘어난 437만명으로 집계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1만3000명으로 5만9000명 늘었고 비중은 21%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14%를 차지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전년보다 5만5000명이 줄어든 94만명이다. 이는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저치다. 무인단말기인 키오스크나 배달앱 활용 등 자영업의 특성이 변화하면서 가족 단위의 운영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다. 비임금근로자의 평균 연령(연속)기간은 전년보다 2개월 늘어난 15년으로 집계됐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0.1시간 감소한 44.9시간이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이 0.2%p 오른 80.1%, 산재보험이 0.9%p 증가한 65.3%로 나타났다. 계속 자영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비임금근로자는 2.5% 감소한 86.8%였다. 현재 일을 그만 둘 계획은 5.3%로 1.1%p 상승했다. 그 가운데 1년 이후 그만둘 계획이 57.8%로 가장 높았다. 그만두려 하는 주된 이유는 ‘사업부진’(41.6%)이 가장 컸고, 그다음 ‘개인적인 사유’(37.6%), ‘임금근로로 취업을 위해’(8.9%)가 뒤를 이었다. 1년 이내 신규 자영업자는 86.2%가 1년 미만 준비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사업자금 규모는 70.6%가 5000만원 미만이었다. 자금을 조달한 방법은 71.2%가 본인이나 가족이 마련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석연기자

## SSG닷컴, ‘푸드 쓱세일’ 진행

SSG닷컴이 고객 장바구니 부담 줄이기에 힘을 보태는 ‘푸드 쓱세일’ 행사를 5일까지 연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겨울 제철과일을 특가에 선보인다. 제주감귤(3kg)과 샤인머스켓(1.5kg)을 각각 5900원에, 단감(5kg)은 8900원에 판매한다. 신상품 과일인 창조배, 시나노골드사과, 마이하트포도 등을 정가 대비 3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국내산 1등급 한우를 최대 반값에 내놓는다. 대구 명물 팔공상강한우를 안심(3만9900원), 등심(2만8910원), 채끝(3만4300원), 국거리(9500원), 불고기(1만600원), 양지(1만6500원), 사태(9900원) 등 부위별로 300g씩 소포장해 특가에 선보인다.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을 위한 식품 모음전도 연다. ‘텐프스’ 브레인케어, ‘정관장’ 홍삼즙, ‘위고에빅토르’ 쿠키 선물세트, 인기 초콜릿 브랜드 ‘페레로로제’ 등 300여종의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2시에 인기 먹거리 상품을 할인가로 판매하는 타임딜 행사도 있다. 대표 상품으로 ‘광천김’ 곱창 도시락김, ‘할리스’ 바닐라달라이트, ‘잇메이트’ 닭가슴살 스테이크 등을 파격가에 선보인다. 행사 기간 쓱닷컴은 10만원 이상 주문 시 SSG머니 5000원을 돌려주는페이백 이벤트를 연다. 페이백엔 SSG머니는 13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쓱데이’ 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이슬비기자